

비록 메달은 없었지만...1년 전 악몽 떨친 박태환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 남자유형 400m 결승서 3분44초38 '4위'

지난해 리우올림픽서 전 종목 예선 탈락 불구 성공적 재기 예고해

1년 전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봤던 박태환(28·인천시청)이 부활을 알렸다.

박태환은 24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아레나에서 열린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38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박태환은 전체 8명 중 4위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분명 2016년의 악몽과 작별을 고했만한 성과였다.

지난해 8월 생애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출격한 박태환은 전 종목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09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또한 한 번의 시련이었다.

자신에게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

을 안겨준 자유형 400m의 실패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박태환은 예선에서 3분45초63로 50명 중 10위에 그쳤다.

금지 약물 사용으로 인한 FINA의 징계와 대한체육회의 반대 등 기량 외적인 부분에서 잡음을 내며 오롯이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다. 올림픽이 끝난 뒤 '너 이상 과거의 박태환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정신을 흐렘했던 이가 예선 문턱도 넘지 못하니 그럴 만도 했다. 어느덧 20대 중반을 훌쩍 넘긴 그의 나이도 이런 시련을 거들었다.

박태환은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뛰었다. 지난 10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400m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동메달에 해당하는 3분43초68을 기록한 박태환은 한 달 뒤 제10회 아

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100m·200m·400m·1500m 금메달을 쓸어 담았다.

12월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제13회 FINA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도 3분34초5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인의 길이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50m보다 절반이 짧은데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빠진 대회였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박태환은 일찌감치 이번 세계선수권을 준비했다. 올해 초부터 호주에서 몸을 만들던 그는 지난 5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2017 아레나 프로 스윙 시리즈에서 자유형 400m 시즌 4위에 해당하는 3분44초38로 성공적인 재기를 예고했다.

이후 이탈리아 로마에서 최종 탐침을 실시한 박태환은 부다페



스트에서 경쟁력 입증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독보적인 존

재로 자리매김한 쑤양(중국)과 빅우 챔피언인 맥호튼(호주)의 벽을

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견제를 과시하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오승환, 컵스전 7회 등판해 1이닝 2K 무실점 '완벽투'

3경기 연속 비자책점 행진 이어가...평균자책점 3.89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 등판해 1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오승환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팀이 3-5로 뒤진 7회말 등판해 1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3경기 연속 비자책점 행진을 이어간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98에서 3.89로 낮아졌다. 승패나 세이브와는 관계가 없었다.

12개의 공을 던지며 삼진범으로 1이닝을 마친 오승환은 삼진 2개를 솜아냈다. 최고 구속은 시속 95.8마일(약 154km)까지 나왔다.

22일 컵스전 등판 이후 하루 휴식을 취한 오승환은 7회 선두타자 애디슨 러셀을 헛스윙 삼진을 처리했다. 볼카운트 2B2S에서 6구째로 시속 95.4마일짜리 직구를 뿌려 헛스윙을 유도했다.

오승환은 이어 타석에 들어선 하비에르 바에스코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번에는 슬라이더로 연달아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오승환은 벤 조브리스트에게 시속 94.5마일짜리 직구로 2루수 뜬공을 유도해 깔끔하게 이닝을 마쳤다.

세인트루이스는 추가점을 뽑지 못해 3-5로 졌다. 2연패에 빠진 세인트루이스는 51패째(47승)를 당했다.

KBO, 국가대표팀 전임 사령탑에 선동열 감독 선임

11월 애프로야구챔피언십 시작 2020년까지 지휘봉

선동열(54) 전 WBC 대표팀 투수 코치가 국가대표팀 첫 전임 감독에 선임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야구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 대회의 경우 KBO가 내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의해 대표팀 인원을 선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4일 국가대표팀 전임감독에 선동열 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 투수코치를 선임했다.

KBO가 파견하는 국가대표팀에 전임감독제를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선 감독은 금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내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12를 비롯해 오는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야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다.

선 감독은 감독으로서 KBO 리그 우승 2회의 지도력과 다수의 국제 대회에 투수코치로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KBO 리그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사령탑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KIA 타이거즈의 감독을 맡았었다. 감독 통산 1159경기 584승22무553패의 성적을 올렸으며, 2005년 삼성 감독 시절에는 역대 최초로 부인 첫 해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 2006년에는 통합 우승 2연패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팀에서는 2006년 제1회 WBC에 투수코치로 참가해 한국 마운드를 칠백으로 만들어 4강진화를 이끌었고, 2007년 아시아선수권, 2015년 프리미어12를 비롯해 2017년 제4회 WBC까지 각종 대회에 투수코치로 활약했다.

특히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김인식 감독을 보좌해 상황에 적절한 투수교체와 운영으로 대표팀을



초대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선수시절에는 1985년 해태에서 데뷔해 무등산폭격기로 불리며 1995년까지 11시즌동안 367경기 146승 40패 132세이브 평균자책점 1.20을 기록한 KBO리그의 레전드 투수이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본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뛰면서 10승 4패 98세이브의 성적을 올렸다.

선 감독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돼 부담감이 막중하다. 대표팀 구성과 전략에 연속성을 갖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김현수, 후반 첫 선발출전 경기서 1안타·1타점

첫 타석 몸에 맞는 공 부상은 없어...추신수 무안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가 14일(현지시간) 열린 화이트삭스와 경기 4회초 화이트삭스 선발투수 미구엘 곤잘레스를 상대로 우중간에 2타점 직시타를 쳐내고 있다. 이날 6경기만에 선발로 출장한 김현수는 1번타자로 타선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후반기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안타와 타점을 올렸다.

김현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캄프 야드에서 열린 2017메이저

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후반기 들어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김현수는 안타 1개를 추가해 시즌 타율을 0.234로 끌어올렸다. 2회말 무사 만루에서 첫 타석에 등장한 김현수는 몸에 맞는 볼을 얻어 밀어내기 선제 타점을 올렸다. 시즌 10타점째. 다리에 공을 맞았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김현수는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안타를 뽑아냈다. 이후 타석에서는 출루에 실패했다.

경기는 볼티모어가 9-7로 승리했다. 2연패를 끊은 볼티모어는 시즌 47승51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진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우익수 겸 1번타자로 선발출전해 4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김인경, LPGA 마라톤 클래식 우승

시즌 2승 달성

김인경(29·한화)이 시즌 2승 달성에 성공했다.

김인경은 2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리아의 하이랜드 메도우 골프장(파 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 최종합계 2인더파 26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날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한 김인경은 2위 렉시 톱슨(미국)을 4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날 4일 슐라이트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인경은 시즌 2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 24만 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도 차지했다.

전날까지 2위에 머물렀던 김인경은 4라운드 1, 3, 4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선두에 올라선 김인경은 7, 8



9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우승에 한 발 다가갔다.

후반 라운드에서 2타를 줄인 김인경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다. 기상 악화로 잠시 경기가 중단됐지만, 김인경의 상승세를 막지는 못했다.

전날 공동 3위였던 박성현(24)은 마지막 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13인더파 271타로 공동 6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맨유, 승부차기 끝에 레알 마드리드 제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미국에서 치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맞대결에서 웃었다.

맨유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2-1로 이겼다. 전제골은 맨유가 가져갔다. 전반 추가시간 앤서니 마살이 드리블 돌파로 왼쪽 측면을 완벽히 무너뜨린 뒤 내준 공을 제시 링가르드가 왼발로 마무리했다. 마살의 개인기가 돋보인 장면이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24분 카세미루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두 팀은 남은 시간 득점을 노렸으나 상대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맨유는 후반 38분 마루앙 펠라이냐가 노미크 기회를 놓쳐 아쉬움을 남겼다.

곧바로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웃은 팀은 맨유였다. 내로라하는 키퍼들이 실축을 거듭한 가운데 5명의 선수 중 2명이 성공한 맨유가 신승을 거뒀다.